

敎員養成大學과 當面課題



서울敎大 學長 徐 章 錫

이번에 서울교육대학을 비롯해서 전국의 11개 교육대학이 韓國大學敎育協議會에 가입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전국 대학의 총학장님들과 함께 우리 나라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생각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특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나라 大學街에는 새로운 바람과 소망이 일고 있으며, 대학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대 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대학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하여 모든 대학이 나름대로 조용한 改革과 內實을 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4년제 학부과정으로 개편을 마친 교육대학도 전국의 대학교육 改善과 正常化의 과제에 함께 참여하고, 문제해결에 보조를 함께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교육대학의 설립 목적이나 이념이 일반대학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해도, 高級人力資源을 만들어 내고, 학문과 인격을 도야하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를 길러낸다는 일반적인 大學의 目標은 다를 바가 없으며 특히 학부대학으로서의 경영상의 제 문제점이나, 대학가의 문제로서 걱정을 해나가야 할 과제들은 일반대학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대학의 문제도 한국 대학교육의 협의 대상내의 문제로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정부는 우리 대학가에 「大學의 自律」이라는 대학정책의 지표를 제시하고, 대학의 문제는 대학인의 힘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침으로 삼았다. 이것은 정부가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여를 최대한 줄여나가 중국적으로 대학은 대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 지표를 測期的인 措置로 받아들이면서, 관용과 화합의 國民的 總和의 원대한 목표 실현을 위하여 우리 대학인은 모름지기 새 전기의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육대학도 열외에 있을 수는 없으며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이에 참여하고 가담하여 대학인의 등쳐진 의지와 노력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 대학인이 한결같이 다짐하고 있듯이 「대학의 자율」이란 결코 대학의 무원칙, 무질서, 무책임의 자유방임은 아니며, 도리어 全體 秩序 속에서의 조화와 자기 책임의 완수 내지는 창조적인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학교육협의회가 主導的으로 문제를 收斂하고 消化하며 나아가서 전기 마련을 위한 방책을 세우고 진로에 대한 명석한 의지가 중지에 의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싶다.

물론 韓國大學敎育協議會의 기능이나 목표가

이런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순수한 대학원의 모임이기도 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비록 우리 나라 대학의 과제를 해결해 나갈 책임기관이거나 정책수립기관만은 아닐지라도 대학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학장들의 조직이라고 볼 때 단순히 대학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친목도모의 소극적인 입장에만 설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대학행정상의 정책수립이나 과제해결을 위한 建設的인 재의나 의견제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한편 大學社會 밖에 대학이 처하고 있는 실정이나 문제점들을 홍보나 계도도 할 수 있으며, 사회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실 오늘날 우리 대학인들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이 어떻게 선진국의 대학의 모습에 뒤집어 없이 고급인력을 效率的으로 육성해 가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며, 한편 선진국들이 지난날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첨단 학문연구와 고등교육에 정진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학은 정녕 한 사회, 한 나라는 물론 모든 인류에게 삶의 지표를 심어 주고, 國家發展의 里程表를 설정해 주는 영원한 등대이며, 밑거름이라 생각할 때, 우리 나라와 같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산적한 여러 과제를 지니고 있는 상황속에서의 대학의 구실이나 기능에 대해 참으로 부른 사명감과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본인은 현재 교원양성대학의 운영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훌륭한 교육자를 양성해 내는 일이 국가 건설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시급한 일인가를 거듭 느끼며, 교육대학의 육성이나 운영상의 문제도 여러 대학인들과 함께 걱정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게 된 점을 지극히 다행한 일로 생각하는 바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敎員養成大學으로서 두 갈래의 코스, 즉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과 국민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이 있다. 그런데 장차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일을 해 나갈 일꾼을 훌륭히 길러 낸다는 점에서 중등이나 초

등이 다를 바는 없지만, 그러나 국민의 基礎教育, 또는 기본교육이란 결지에서 국민학교 교육의 소중함과 절실함은 여기서 새삼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국민학교 교육의 成敗는 정녕 모든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며, 교육의 성패는 곧 인간을 제대로 길러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열쇠가 된다고 자부하고 싶다. 그것은 한 인간의 정서의 바탕이나 성격의 형성 그리고 사고력을 형성하는 기반이 국민학교에 있으며 이 시기에 얼마나 마음의 뿌리를 제대로 붙여 주느냐의 문제는 한 평생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들을 참담게 교육해 나갈 국민학교 교사 양성은 國家 再建에 직결이 되고 발전과 개발의 토대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 정부에서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여 전국의 11개 교육대학을 4년제 학부과정으로 개편하였고 서울이나 부산, 광주 등 교육대학은 이제 내년에 4년제 학사 교사를 교육 일선에 내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문교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文敎當局에서도 문교행정의 역점을 우리 나라 義務教育으로 실시되는 국민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에 두고, 이를 교육해 나갈 교사양성의 의의를 강조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차제에 국민학교 교사 양성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국민학교 교사 양성은 지금부터 교단에 세우는 교사만 그 질을 높일 것이 아니라, 이미 교육대학의 문을 거쳐 나간 一般敎師들의 수준도 함께 높여 가는 문제를 생각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이 문제는 금학년초에 대통령께 드리는 문교부의 행정사항 속에도 거론이 된 바 있고, 방침으로서 보고되었지만, 교육대학에 夜間制나 季節制大學을 부설하여 기왕에 교육대학을 졸업한 2년제 초급대학 출신자나, 그 전에 졸업한 사범학교 출신 교사들에게 학부과정의 문호를 열어 주어 학사 교사의 자격을 갖추어 주는 일이다.

오늘날 20세기는 지식이 날로 팽창하고 새로운 개념이나 불확실한 변화가 다변으로 일어나는 세대이므로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야 할 아동

이나 학생은 옛날의 고전적인 교과목 위주의 교육을 받은 學部 學力 未達의 교사로는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새 시대의 교사는 스스로 미래를 탐구하고 새로운 개념을 탐구해 나가며 부단히 교육의 기술이나 방법을 쇄신해 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일꾼을 길러낼 수가 없다. 교육을 평생 받아 나가면서 또한 교육을 배풀어 나가야만 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 같다.

현재 방송통신대학 같은 開放教育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지만 여기에 초등교육과 정도의 규모로나 방법으로는 여러 면에서 목표에 따를 수가 없고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의 案대로 전국 11개 교육대학에 하루 속히 계절제, 야간제 과정을 부설하여 국민학교 교사의 탐구욕과 연구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부수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일반 대학에 설립·인가되어 있는 教育大學院도 교육대학에 설립하여, 초등교사 과정을 중심으로 교사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하겠다.

국민학교 교사의 질적 향상도 문제지만 다른 모든 교육 기관이나, 심지어 기업체 등에는 학사나 석사 또는 박사들이 기용되고, 중시되는데 똑같은 교육기관인 국민학교 교사는 大學院課程이 존중되지 않고 연구와 탐구중도가 경시된다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국민학교 교육의 향상을 꾀할 수 없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대학은 현재의 시설이나 교수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대학원 운영이 가능하며 수익자 부담으로 하면 정부의 제정의 압박도 큰 문제가 아닐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국민학교 교사의 완전무결한 육성을 위하여 모든 교대생은 기숙사에 수용하고 生活 訓練을 토

대로 해서 사도를 진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각 교육대학에는 기숙사가 있으나, 일부 학생밖에 수용이 안 되고, 자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의 교육과정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를 국가적인 견지에서 사관학교나 경찰전문학교 등과 같은 차원에서 국민학교 교사를 의도적으로 길러내야만 국민 교육을 위해서 신명을 다 하는 일꾼이 배출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도 교육대학생에게는 수업료가 면제되고, 학비보조금도 소액이 나가나, 대학의 과정을 선택해서 본인이 학비를 부담하고 수학하는 현재의 제도로서는 민족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교사로서의 인재를 完全無缺하게 길러 낸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다.

이 밖에도 국민학교 교사 양성과 함께 병행해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早期教育을 담당해 나갈 유치원 교사의 양성문제, 그리고 사회의 그늘에서 불우하게 자라나는 기형아·정박아·이상아 등을 교육해 나갈 特殊教師의 양성문제 등 교육대학의 과제들이 있다.

다행히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내다보고 교원 종합대학의 설립을 서두르고 있으나 이러한 과제들을 모든 교육대학도 같은 국립 교사양성대학으로서 걱정을 함께 나누어 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 교원양성 방법이나 교육대학의 과제에 대하여 한두 가지 말하였지만, 요는 우수한 교사 양성이 곧 우수한 국민을 길러내는 첩경이라는 견지에서, 교사 양성 제도나 방법을 더욱 국책으로 뒷받침해 주고, 또한 국책의 으뜸가는 과제로 삼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대학교육협의회 의회 의 새 관심사가 되기를 또한 간곡히 바랄 뿐이다. *